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대림 제3주일 (2024년 12월 15일) - 자선주일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필리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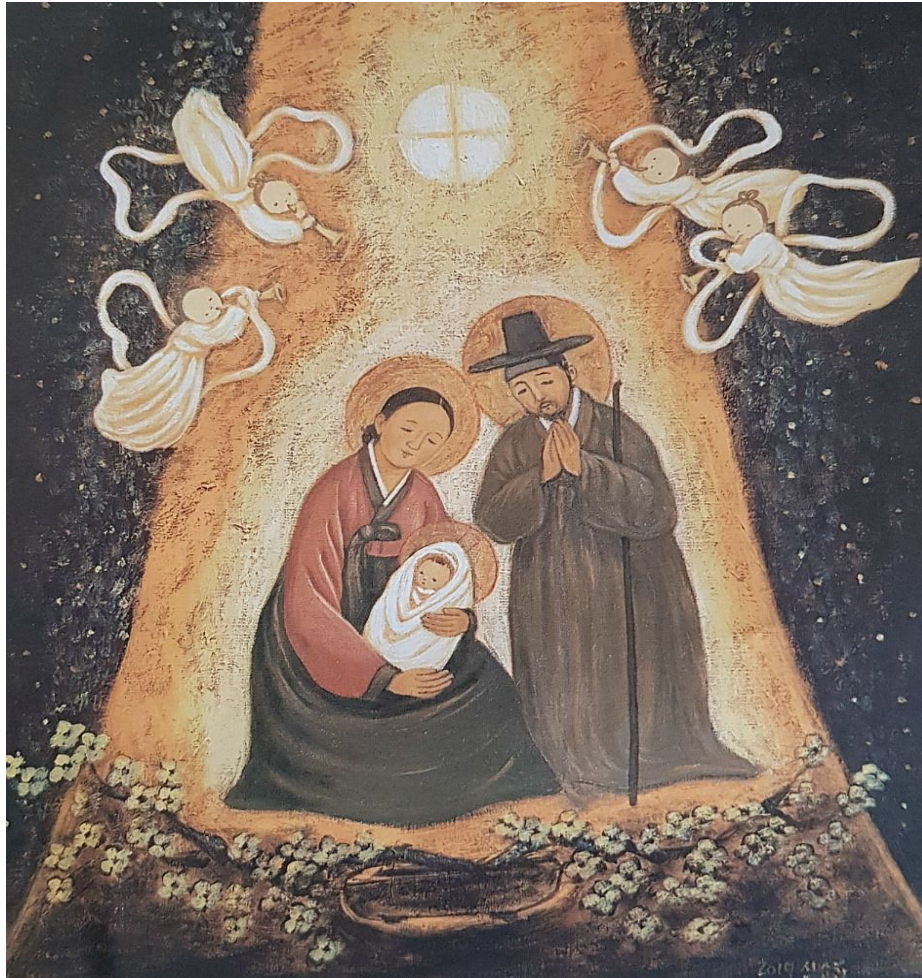


그림:심순화 카타리나, 2019 (출처: 수원 주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루카 3,16)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91

구세주 빨리 오사

대림

Cabrisseau

구 세 주 빨-리 오 사 어 두 움 을 없 이-하 며 동

정 마 리-아 에 서 탄 생 하 옴-소 서

1. 원 조-들
2. 우 리-죄
3. 고 통-중

이 범 죄-한 후 성 조 에 게 허 락 하 신 메
 를 잊 으-시 고 참 회 하 는 자 녀 들 을 용
 에 만 민-들 은 메 시 아 를 고 대 하 여 애

시 아 를 보 내-소서 어 지 러 운-세 상 에 방 황 하 는 우
 서 하 여 주 옴-소서 이 세 상 모-든 유 혹 향 상 우 리 과
 타 게 기 다 리-오 니 오 소 서 메-시 아 여 이 인 류 를 돌

리-들의 간 구 함 을-들 으 사 보 내 주 옴-소 서
 롭-히 니 이 어 려 움-이 기 계 도 와 주 옴-소 서
 보-소서 구 세 주 언-제 오 나 언 제 나 오-시 나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재건

(스바니아 3,14-18)

14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5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6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17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18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마르 13, 32) 말씀으로 기도하며, 죽음을 앞둔 노년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부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을 잘 다듬고 정화하는 시간인 연옥을 이 지상에서 보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하느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품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CT]
-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마르 13, 28) 말씀으로 기도하며,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면서 마른 가지와 마른 잎을 보며 문득 우리 신앙생활에도 잎이 돋으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NV2]
-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르 13, 29)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연상되면서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서 처신하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NV2]
- “현명한 이들” (다니엘 12, 3)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 않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젊었을 때와는 달리 돌이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삶의 매 순간 지혜롭게 많은 선택을 하느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NV2]
-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다니엘 12, 3) 말씀으로 기도하며, 죽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2]
-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르 13, 31-32) 말씀으로 기도드리며 묵상을 나눴습니다. [NV4]
- “아버지만 아신다.” (마르 13, 32) 말씀으로 기도하며, 요즘 영성체 후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과 그 일로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인간적인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나와 내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RC2]
- “아버지만 아신다.” (마르 13, 32) 말씀으로 기도하며,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넓게는 세상의 마지막, 또 좁게는 개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유한하고 짧은 삶 안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RC2]

-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마르 13, 28)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늘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코헬 3, 1) 말씀에서와도 같이, 자연은 그것을 잘 알고, 또 그렇게 때와 시기에 맞추어 자신의 계절을 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만 보아도 여름이면 잎이 무성하고 물이 올라 싱싱하다가도 가을이 오면 무성하던 잎들이 낙엽으로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나무도 겨울을 맞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때를 지나고 있으며, 자신의 계절을 맞기 위해서 내려놓음과 비움을 잘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209번 '새로운 계명' 1절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새로운 계명

209

요한 13,34-35

김정식

D Bm Em A7 F#7 Bm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

7 Em E7 A7 Aaug D Bm Em A7

랑 하여라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 - 고 서로

13 D G D/A A D D7

사랑 하리 라 모두 내 게 오 리 라 1.주
2.주

17 G D B7 Em A7

님 내 이웃의 소박한 웃음에서 당신을 봅니
님 내 이웃의 가난한 기쁨에서 당신을 봅니

23 D D7 G D D7

다 음 - 주 님 내 이웃의 말 없 는 눈 물 에 서 당
다 음 - 주 님 내 이웃의 끝 없 는 슬 픔 에 서 당

29 G E E7 A7 Aaug D Bm

신 을 느 낚 니 다 음 - 이 제 우 리 는 새 로
신 을 느 낚 니 다 음 - 이 제 우 리 는 새 로

35 Em A7 D G D/A A D

운 계 명 따 라 서로 사 랑 합 니 다 가 난 한 마 음 으 로
운 계 명 따 라 서로 사 랑 합 니 다 가 진 것 을 나 누 며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오경 말씀과 함께한 10개월의 여정 '성경 잔치'로 마무리



“오늘 성경 잔치는 1부로 묵상 글쓰기와 빈칸 채우기, OX 퀴즈로 개인 필기시험이 있겠습니다...”

“묵상 글쓰기와 퀴즈는 Open Book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ChatGPT 도움은 받아도 됩니까?”

“하하하” 이렇게 모두 박장대소를 하며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장장 10개월에 걸친 모세오경 통독을 마무리하는 성경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은 매월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느낀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공부한 내용을 메모하는 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숙제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을 이루거나 삼삼오오 마음이 맞는 신자들끼리 그룹을 이루어 진행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기도 했고, 신부님의 모세오경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통독을 하기도 했고, 통독을 하는 방식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개월의 여정을 정리하는 성경잔치.



1부는 개인전으로 묵상 글쓰기와 빈칸 채우기, OX퀴즈. 이에 임하는 분들의 태도는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다소 긴장한 것도 같았고, 단단히 각오하고 오신 분들, 1등이었으면 하고 내심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분들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사뭇 다르게 유쾌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일부 시험 문제에 다른 시험문제의 답을 힌트로 주셨어요.” “시험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다 찍었습니다.” 등등 얼마나 유쾌한 표정으로 소감을 이야기하시던지요...

2부 성경 나눔은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율동과 함께 시작해서 4개 조로 흩어져 10개월간 모세오경을 통독하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고, 다시 모두 함께 모여 각자의 나눔을 발표하고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서가 성령의 감도로 쓰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만 해석했던 마음에서 성경 저자인 사람의 관점이 들어갔음을 들으며 새로운 이해를 하는 중입니다.”

“완고함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인도함으로 탈출하였는데 광야에서 하느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악, 지옥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는 주 예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병고의 체험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니 하느님은 살리시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내 현실의 삶은 건너감 이후를 준비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에 대답할 수 있도록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여정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은 있는데 성당 성경 통독은 처음... 냉담을 하다 돌아온 지 1년... 참석 자체가 큰 은총인 듯합니다.”

“모세오경 속 역사는 다양하지만,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느님은 생활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셨던 분. 이번 통독을 통해 무서운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영어 성경을 필사하며 하느님의 자애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제키엘서를 마쳤습니다.”

“거리가 느껴졌던 구약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다음 성경 통독이 기대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치는 장면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내 모습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췄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을 성경 잔치에 와서 받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통독을 통해 타인을 위한 기도, 감사하는 마음,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였고, 많은 의문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내 마음속 편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직무 유기 아니십니까? 왜 전쟁을 허락하시나이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루하지만 다 읽어내서 뿌듯합니다. 많은 우상 중에서도 하느님을 숭배했던 선조들의 신앙심...”

“성경이 매일 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해 줬습니다. 새로 탄생한 느낌!”

“삶 고비의 순간마다 성경은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새기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외로울 때 평생의 멘토가 성경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한 성경 통독 모임에서 ‘말씀’을 얻기 시작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새기며 시작한 성경 통독.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3부는 2부 성경 나눔을 위해 구성된 팀원들과 함께 스피드퀴즈, 성경 구절 빨리 찾기, 성경 구절 완성하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 기억해서 빨리 맞추기, 성경 구절 암송하기 등 재미있고 신나는 팀 대항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원으로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어 조금은 어색했던 시작이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차차 바뀌었습니다. 팀원들끼리 어찌나 단합이 잘되고 팀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던지, 신부님과 진행을 도와주던 봉사자들까지 배꼽을 쥐고 웃을 수 있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팀 대항 1, 2, 3 등 선물과 미처 순위에 들지 못한 4등 팀의 야차상까지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와 얼굴에 웃음 가득, 그리고 마음에는 보람과 축복 가득 안고,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는 내년 성경 통독은 구약 역사서 말씀과 함께, 구역별로 모든 신자분과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2024년 성경 잔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경 통독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전신자가 함께 성경 잔치를 하는 그날까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아자아자!

※ 가톨릭평화신문에 본당 ‘성경 잔치’ 소식이 담겼습니다. 여기를 클릭/스캔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2024 10월 성경 통독 신명기 말씀과 함께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 어느덧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에 이르게 되어 기쁩니다. 신명기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고, 시대적인 사건들이 ‘모세의 당부’에 나오기엔 맞지 않다고 느껴졌던 까닭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크게 다섯 번에 걸친 편집 과정을 통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신명기가 완성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읽게 될 신명기계 역사서도 기대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나’로 바꿔 넣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모세의 당부 말씀 역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신명 30,15-16)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불완전한 걸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억할게.’하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아마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은 열어지고, 편집되고, 퇴색된다는 걸요. 모세는 그래서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신명 31,11-13)

아마 우린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린 벌써 알고 있는 듯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작은 일부터 해 보겠습니다. — 글 | 지연희 스텔라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신명 32,10)

지난날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접합니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던 언니를 갑자기 저세상으로 보내고 곧이어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매일매일 허전한 마음으로 방황하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집어 든 성경에서 저를 친 구절이 있었습니다. 스산한 울음이 가득 찬 저의 빈 가슴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당신의 눈동자같이 아껴 주시는 주님, 나의 하느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광야이기를, 제가 저의 ‘이사악’을 내려놓는 제단이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 글 | 강금덕 안나

제 인생에서 하느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이 분명 많았는데, 살면서 그런 체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대한 정성을 소홀히 한 부분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또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며,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하면서 백성을 이끄는 그의 모습과 백성을 위해 하느님께 대변하기도 하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느님의 소리를 전달하며 온갖 헌신을 했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의 결과도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백성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처럼 제 주위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과도 ‘함께’ 하느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신명 32,49)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신명 32,52)

40년 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탈출 3,4) 하고 답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기만 할 뿐,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고 하느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느님은 아시지 않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저도 그토록 갈구하던 가나안 땅을 밟게 해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을 주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120년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굽이굽이 고단한 삶을 마주했을지라도 언제나 함께했던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인생에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모세의 일생에서와 같이 주님이 만드신 긴 여정 속에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함께 꾸려 나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게 하시고, 교만하면 자빠지게 만드시는 축복 속에 주님을 따르며 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글 | 김은숙 데레사

신명기에서는 모든 율법(십계명과 규정과 법규) 말씀들을 존중하여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저주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이들은 모든 복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집트인이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몰래 때려죽였던 인물입니다.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인물이 이러한 살인 이력을 지닌 불완전한 인간이어서 모순적이지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치며 하느님의 백성으로 단련 받고, 민족들을 ‘사랑이신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 온 마음과 정신과 목숨을 다해 이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사귀시던 사람**” (신명 34,10)으로 모세가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봅니다. — 글 | 윤선호 소화데레사